

호주, 세계 낙농업 전망

권 오 복*

주요 개도국의 경제성장과 소득 향상에 따라 세계 낙농품의 소비에도 구조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버터와 분유 소비는 감소하는 대신 치즈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낙농 제품 생산도 소비 변화에 맞춰 변하고 있다. 러시아가 세계 최대의 치즈 수입국으로 부상한 한편 중국과 인도의 낙농 제품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다음은 지난 3월초 호주 농업전망대회에서 발표된 세계와 호주의 낙농전망을 정리한 것이다.

2008-09년까지 세계낙농제품 가격 상승

2006년 후반 주요 낙농제품의 세계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그 같은 상승세는 2007년 1분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낙농제품가격이 상승한 것은 수요가 증가한 시기에 수출국인 유럽연합, 뉴질랜드, 호주의 낙농제품 생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계절적 조건과 제도적 장치로 인한 이와 같은 낙농제품의 공급의 제한으로 앞으로 수년간 낙농제품의 세계가격은 계속해서 강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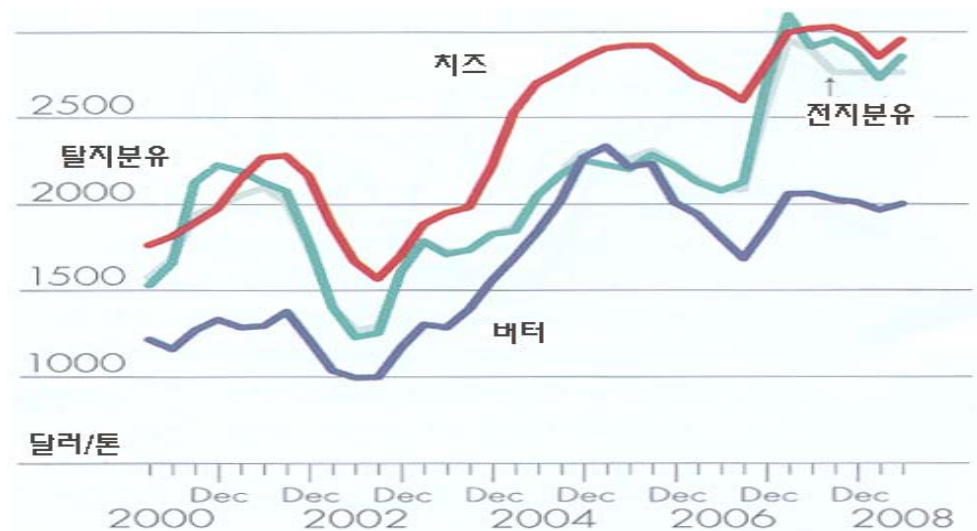
호주에서는 현재의 가뭄으로 사육농가들이 사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사육규모를 축소했기 때문에 2006-07년과 2007-08년 생산과 수출이 크게 감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obkwon@krei.re.kr 02-3299-4210

할 것으로 예측된다. 뉴질랜드에서도 기후조건이 나빠 낙농제품의 생산이 감소하였다. 세계 최대의 낙농제품 생산지역인 유럽연합에서는 많은 낙농생산 지역에서 고온과 가뭄으로 우유 쿼터가 증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6-07년 우유 생산량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유럽연합의 우유 생산의 감소는 우유 생산 인센티브를 줄이려는 공동농업정책(CAP)의 개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와 우크라이나와 같은 신흥 낙농제품 수출국의 낙농제품 공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로 국내 소비용으로 이용되는 중국의 낙농제품 생산 역시 계속해서 큰 폭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이와 같은 공급조건과 달리 낙농제품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는 동남아시아, 러시아, 중동 및 북부아프리카 지역에서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평균 소득의 증가에 힘입어 계속해서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그림 1 낙농제품의 세계 가격



단기적으로 세계 낙농제품의 공급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낙농제품 가격은 2008-09년에도 강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그러나 2006-07년 호주 낙농가들의 수취가격은 세계 낙농가격의 상승세가 반영되지 않았다.

이것은 상당 양의 수출용 가공낙농품이 미리 판매되었기 때문이다. 2007년과 2008년에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면 호주의 우유가격에도 인상된 세계 가격이 반영될 것이다.

2011-12년까지 앞으로 5년간 주요 수입국들의 대부분이 건설한 경제성장으로 낙농제품 수요도 계속해서 강세를 띠 전망이다. 그러나 2008-09년부터 주요 수출국의 생산이 수요 증가를 앞지르게 되어 결국 낙농제품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다. 또한 중국과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낙농산업이 성장함으로써 국내 소비의 상당부분을 자체 생산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들 국가의 낙농제품 수입수요가 감소하고, 그에 따라 세계 공급이 확대될 것이다.

세계 우유생산 증가 전망

2006년 세계 우유 생산은 2% 증가한 4억 2,500만 톤에 달했다. 이는 주로 중국(19%), 아르헨티나(8%), 브라질과 인도(3%)의 우유 생산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주요 수출국가운데에서는 뉴질랜드의 우유생산이 거의 5% 증가한 반면 유럽연합과 호주의 우유 생산은 1% 정도 감소하였다.

2007년과 2008년 세계 낙농제품 생산은 중국, 인도, 아르헨티나와 같은 신흥낙농제품생산국들의 생산 증가에 따라 완만하나마 증가할 전망이다. 주요 수출국인 호주, 뉴질랜드, 유럽연합에서는 낙농제품 생산의 회복세가 매우 더딜 것으로 예측된다. 호주에서는 낙농제품 생산이 취약한 계절적 조건과 수자원의 영향에서 서서히 회복할 것이다. 유럽연합에서는 CAP 개혁으로 인해 낙농제품 생산 인센티브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2008년 이후 2012년까지의 전망기간 세계 우유 생산량은 중국, 인도, 아르헨티나의 지속적인 우유 생산 확대에 따라 증가세를 나타낼 것이다. 이들 국

가에서는 평균 소득과 국내 수요의 증가, 높은 수준의 세계 가격으로 인해 우유 생산을 위한 새로운 투자가 촉진될 것이다. 반면에 기존의 우유 생산국들의 우유 생산 증가 속도는 상대적으로 완만할 전망이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바이오연료 생산용 곡물과 사료용 곡물과의 경쟁 확대와 그에 따른 사료비의 상승에 따라 우유 생산이 지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2007-08년부터 기후조건이 정상을 되찾으면 젖소 사육두수가 회복하여 낙농생산이 서서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낙농제품 소비, 지속적인 증가 전망

세계의 우유 및 낙농제품 소비는 아시아의 주요 개도국에서 높은 소득에 따른 소비패턴 변화로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다. 예를 들면 2000년과 2006년 사이 세계의 연간 우유 소비량은 13% 증가하여 1억 5,000만 톤에서 1억 7,000만 톤으로 늘어났다. 2006년 주요 신흥국인 중국과 인도의 우유 소비 증가율은 각각 18%, 6%에 달했다. 이들 국가에서 1인당 우유와 낙농제품 소비량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소비가 더 늘어날 것이다.

주요 낙농제품 가운데에서 지난 5년간 버터의 세계 소비는 10.5%, 치즈는 9.5%, 전지분유는 8.5% 증가하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 탈지분유 세계 소비는 9% 감소하였다. 낙농제품의 세계 소비가 증가한 것은 주로 중국, 인도,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의 소비 증가에 힘입은 것이다. 이들 국가, 특히 중국과 인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소득 향상과 함께 서구식 생활양식의 확대로 우유와 낙농제품의 세계 수입 수요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낙농제품의 세계 재고는 감소 전망

낙농제품의 세계 수요가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공급이 여의

치 않은 상황에서 2006년 주요 낙농제품의 재고가 크게 낮아졌다. 유럽연합에서는 CAP에서의 생산 유인 정책으로 인해 낙농제품의 재고가 최고수준에 달했다. 2006년 12월 유럽연합의 버터 재고는 12만 2,000톤에 달했다. 그러나 치즈, 전지 및 탈지분유 재고는 효과적으로 제거되었다. 단기적으로 최근 CAP 개혁 조치가 효과를 발휘함에 따라 낙농제품의 재고 수준은 더 낮아질 것이다. 낙농품의 세계 수요는 여전히 강세를 나타내고, 생산 증가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7-08년과 2008-09년 세계 낙농품 수출은 주요 수출국인 유럽연합, 호주, 뉴질랜드에서 생산 차질로 인해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낙농업자들이 수입(收入)극대화를 추구함에 따라 세계 낙농제품 수출 구조도 계속 변할 것이다.

중기적으로는 유럽연합, 호주, 뉴질랜드에서의 생산 증가로 낙농제품의 세계 수출은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수년간 낙농제품의 세계 수출 증가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멕시코, 브라질과 같은 국가에서 낙농품 생산이 증가하여 국내 소비의 상당 부분을 국내 생산으로 충당함으로써 수입 수요가 감소할 전망이다.

세계 낙농제품 가격 전망

2007-08년과 2008-09년 대부분의 낙농제품의 세계가격은 수요가 공급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어서 상승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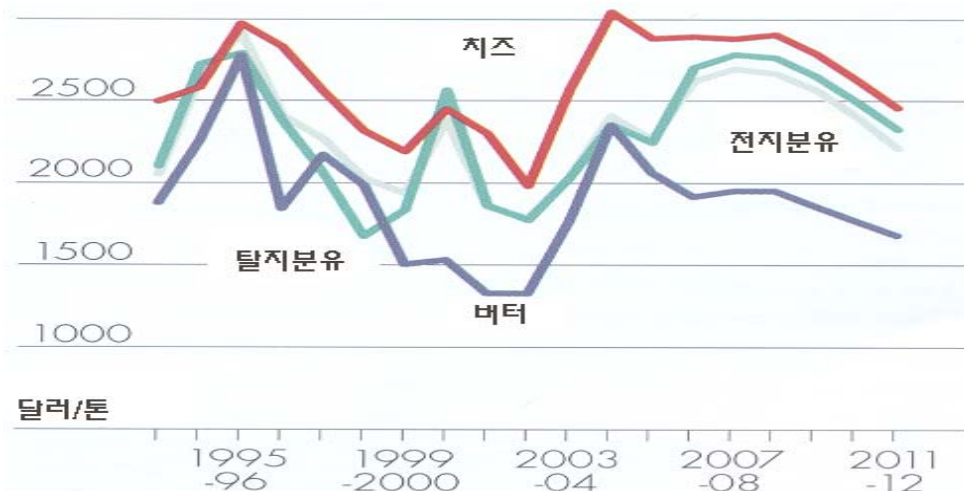
지난 수년간 낙농제품의 수요 증가 정도는 품목에 따라 다르다. 치즈 수요가 버터나 탈지분유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났다. 치즈 수요가 증가하자 분유 생산이 줄어들었다. 분유 생산이 감소함에 따라 앞으로 수년간 분유 가격이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버터 가격은 주요 시장에서 소비가 증

가하지 않아 정체 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치즈

세계 치즈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소득 증가에 따른 개별 소비자들의 치즈 소비가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은 아시아와 동부 유럽지역의 주요 개도국에서 두드러진다.

그림 2 세계 낙농제품 가격 전망



지난 수년간 일본은 세계 제 1의 치즈 수입국이었다. 일본이 세계 치즈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로서, 물량으로는 연간 20만톤의 치즈를 수입한다. 그러나 2005년부터 러시아가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치즈 수입국이 되었다. 2006년 러시아는 2002년보다 77% 늘어난 23만톤의 치즈를 수입했다. 러시아에서 생산을 증가하는 치즈 소비 증가에 따라 앞으로 치즈 수입이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다. 멕시코와 한국도 치즈의 주요 수입국이 되었다. 2000년 대비 두 나라의 치즈 수입은 각각 57%, 43% 증가하였다. 2005년 멕시코와 한국은 세계 치즈 수입의 13%를 수입하였다.

표 1 세계 및 호주의 낙농산업 전망

	단위	2004-05	2005-06	2006-07	2007-08	2011-12
세계						
지표가격						
버터						
-명목	달러/톤	2,208	1,998	1,915	2,000	1,900
-실질 ¹⁾	달러/톤	2,356	2,053	1,915	1,955	1,696
탈지분유						
-명목	달러/톤	2,210	2,175	2,700	2,850	2,630
-실질 ¹⁾	달러/톤	2,358	2,235	2,700	2,786	2,347
치즈						
-명목	달러/톤	2,856	2,792	2,850	2,950	2,780
-실질 ¹⁾	달러/톤	3,047	2,869	2,850	2,884	2,481
호주						
젖소사육두수 ²⁾	천두	2,076	2,050	1,940	1,900	2,133
두당 착유량	리터	4,877	4,923	4,665	4,641	4,980
생산						
전체우유	백만리터	10,125	10,092	9,050	8,815	10,625
우유판매	백만리터	2,024	2,066	2,150	2,186	2,373
제조용	백만리터	8,101	8,026	6,900	6,663	8,252
버터 ³⁾	천톤	147	146	130	122	158
치즈	천톤	388	373	360	350	385
탈지분유	천톤	191	212	190	180	238
전지분유	천톤	189	158	150	145	199
우유가격⁴⁾						
-명목	호주센트/리터	31.5	33.1	32.6	34.7	37.0
-실질 ⁵⁾	호주센트/리터	33.5	34.1	32.6	33.9	32.7
수출량						
버터 ³⁾	천톤	69	82	64	57	71
치즈	천톤	227	202	183	168	202
탈지분유	천톤	141	181	160	141	185
전지분유	천톤	105	110	87	73	126
수출액						
-명목	호주센트/리터	2,488	2,570	2,151	2,160	2,888
-실질 ⁵⁾	호주센트/리터	2,649	2,650	2,151	2,108	2,553

주 : 1) 2006-07년 미국 달러 기준, 2) 6월 30일 기준, 3) 버터유, 버터농축액 등 모든 형태의 버터 포함, 4) 운임 포함, 5) 2006-07년 호주 달러 기준

자료 : ABARE

중기적으로 세계의 치즈 생산은 세계 치즈 수요의 지속적인 강세 속에서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2009년 이후 주요 생산국의 치즈 증산과 수출로 인해 치즈 가격이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CAP 개혁에 따라 보조금이 감축되면 유럽연합의 치즈 산업은 좀더 효율적으로 변모하고, 그에 따라 가격 경쟁력이 향상될 전망이다.

세계적인 치즈 수요가 강세를 띠며 따라 향후 2년간 세계 치즈가격은 높게 형성될 것이다. 2007-08년 치즈의 세계가격은 톤당 2,950달러로 전망된다. 그러나 주요 생산국의 치즈 생산과 수출이 증가하면 가격이 안정세에 접어들 것이다. 2011-12년 세계 치즈 가격은 톤당 2,480달러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격은 2006-07년 예상 가격보다 13%나 낮은 수준이다.

전지분유

2006-07년 전지분유의 세계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유럽연합의 생산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치즈가격이 높게 형성됨에 따라 유럽연합의 치즈 생산자들은 전지분유 생산에 이용될 우유를 치즈 생산에 이용하였다. 수요 대비 전지분유 생산이 감소함에 따라 유럽연합의 전지분유 재고가 크게 감소하였다. 마찬가지로 전지분유의 세계수출도 줄어들었고, 세계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다.

전지분유의 세계 가격이 강세를 나타낸 또 다른 원인은 알제리아와 중국 등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 수입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02년과 2006년 사이 알제리아와 중국의 전지분유 수입량은 각각 48%, 10% 증가하였다. 이처럼 알제리아의 전지분유 수입이 획기적으로 증가한 것은 원유 수입이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2006년 세계 전지분유 수입 중 알제리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36%로서 2000년 24%보다 12%p 증가하였다. 중국에서 전지분유 수입 수요가 증가한 것은 소비자들의 소득 향상, 우유가 건강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중국 정부의 홍보, 그리고 소비자들의 서구 생활양식에 대한 인식 고조 등이 작용하였다. 2002년부터 2006년 중국의 전지분유 소비량은 73% 증

가하였다. 2006년 중국의 전지분유 소비량은 108만 톤으로 추산된다.

중기적으로 중국, 대만, 페루와 같은 국가에서 탈지분유가 전지분유로 전환됨으로써 전지분유의 수요증대와 무역이 더 촉진될 것이다. 이러한 소비패턴의 변화는 전지분유가 복원과정에서 더 큰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고 제품의 향기를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포장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나 중국과 인도에서 전지분유 생산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중기적으로 볼 때 이 두 나라는 국내 전지분유 소비의 상당부분을 자체 생산으로 충당하고 일부 수입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과 인도의 전지분유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국가의 전지분유 수출이 증가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전망 기간 전지분유의 세계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006-07년 전지분유의 세계가격이 크게 오른 이래 앞으로 2년간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2007-08년 전지분유 세계가격은 전년대비 5% 상승한 톤당 2,760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09-10년부터 2011-12년까지 전지분유의 수출 증가가 수입수요를 초과하여 2011-12년 전지분유의 세계가격은 2006-07년 가격대비 17% 하락한 톤당 2,210달러(2006-07년 가격 기준)로 전망된다.

탈지분유

전지분유와 마찬가지로 2006-07년도에 탈지분유 역시 세계적인 수요 강세에서 속에서 공급이 감소하여 탈지분유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 그에 따라 유럽연합 등지의 분유재고가 감소했다. 수출이 감소함에 따라 2006년 세계의 탈지분유 수입량은 전년보다 21% 감소한 64만 9천 톤에 머물렀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탈지분유 수입이 크게 증가한 국가는 인도네시아(27% 증가), 중국(86% 증가), 러시아(20% 증가), 이집트(55% 증가) 등이다.

지난 몇 년간 탈지분유의 세계 수요는 아시아와 동유럽의 개도국의 소득

향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연합에서 광우병 발생을 우려하여 더 많은 양의 탈지분유를 동물사료로 이용하기 시작하여 탈지분유의 세계적인 수요가 더욱 확대되었다.

탈지분유의 세계적인 수요가 강세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분유 수출국들이 많은 양의 우유를 좀더 가격이 비싼 치즈 생산에 이용함으로써 2006년 탈지분유의 세계 생산량은 하락하였다. 이 때문에 미국과 유럽연합의 탈지분유 수출과 재고가 감소하였다. 유럽연합의 경우 2006년 분유재고가 동이 났다.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탈지분유 재고의 고갈과 우유 생산의 완전한 회복세로 인해 2007년은 물론 중기적으로도 탈지분유의 세계 가격은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2007-08년 탈지분유의 세계가격은 6%가 상승한 톤당 2,850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그 이후 2011-12년까지는 수출이 수입수요보다 빠르게 증가하여 2011-12년 탈지분유의 세계가격은 톤당 2,350달러(2006-07년 가격 기준)로 예상된다.

버터

일부 버터 수입국에서 주요 수출국들의 수출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버터 생산을 늘린 결과 2006-07년 버터의 세계가격은 하락했다. 2006-07년 뉴질랜드, 유럽연합, 우크라이나의 버터 수출은 감소하였고, 2007-08년에도 이러한 수출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다.

2007-08년과 2008-09년 버터의 세계가격은 수요 증가와 생산감소로 인해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낼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버터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다. 그 이유는 북미, 유럽연합과 같은 서구의 주요 시장eso 수입수요가 감소하고, 호주, 뉴질랜드, 우크라이나, 인도에서 버터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06-07년 세계버터가격은 톤당 약 1,915달러로 전망된다. 2011-12년에는 이보다 215달러 낮은 톤당 1,700달러에 그칠 것이다.

CAP 개혁으로 유럽연합의 우유 생산 증가 억제

유럽연합은 세계 최대의 낙농제품 생산주체이면서 주요 수출주체이다. 지난 5년간 유럽연합은 세계 치즈 수출의 42%, 버터 수출의 36%, 탈지분유 수출의 22%, 전지분유 수출의 36%를 점했다. 이와 같이 유럽연합이 세계 낙농제품 수출에서 큰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유럽연합의 낙농제품 생산이 변하면 세계 무역과 가격이 큰 영향을 받는다.

생산 쿼터가 늘어나고, CAP 개혁에 따라 낙농가에 대한 직접 지불이 증가하여 중기적으로 볼 때 유럽연합의 우유 생산은 소폭이나마 증가할 전망이다. 이 중에서 생산쿼터가 유럽연합의 낙농 생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유 생산 쿼터는 2008년 재검토를 거쳐 2015년까지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연합 낙농가들에게 지급되는 단일직접지불(Single Farm Payment)이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과거 이러한 지불은 생산과 연계되어 있었고, 실제 낙농가들이 이러한 지불이 생산과 상관없다고 생각할 지 의문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만일 유럽연합의 낙농가들이 이러한 직접지불이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단지 시장의 수요만큼만 우유를 생산하게 되어 결국 우유 생산이 줄어들 것이다. 반대로 생산자들이 직접지불을 생산과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시장 수요를 초과하는 수준의 우유 생산이 예상된다.

2005년에 발효된 CAP 개혁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낙농제품 믹스는 우유의 사용을 놓고 서로 경쟁하는 버터 생산은 감소하고, 고부가가치인 치즈 생산이 증가할 것이다. 낙농제품의 이러한 생산구조 변화는 유럽연합내에서 치즈 수요가 계속 강세를 보일 것이란 사실을 반영한다.

호주 낙농 산업의 전망

수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주요 도전

북부 빅토리아와 같이 호주 주요 지역에서 낙농산업은 관개수에 대한 접근성에 크게 의존하는 가운데 가뭄이 발생하면 우유 생산이 크게 감소한다. 좀더 일반적으로는 가뭄이 만연하면 뉴사우스웨일즈와 북부 퀸즈랜드 해안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의 초지가 악영향을 받는다.

최근 호주의 낙농산업은 종전보다 가뭄의 영향을 더 받는 방향으로 발달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 십여년간 전통적인 낙농 지역보다 토지와 물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내륙으로 낙농업이 이동하였다. 결과적으로 낙농산업이 양질의 초지와 관개수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관개수에 대한 낙농업의 의존 심화로 인해 수자원 공급이 줄어드는 가뭄 시 낙농가들을 더 많은 곤란을 겪게 된다. 최근의 가뭄 하에서 물 공급이 부족하여 평소 젖소들을 먹일 수 있을 정도의 초지가 확보되지 않아 결국 우유 생산이 감소하였다. 또한 광범위한 한발로 인해 곡물과 목초와 같은 구입사료비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다. 가뭄으로 인해 사료비와 같은 투입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낙농가들은 젖소 사육두수를 줄여 우유 생산이 감소했는데 이것은 2006년 후반부터 2007년 초반까지 실제로 벌어진 상황이다.

2002-03년 가뭄부터 호주의 물 저장량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이후 강수량이 예년 수준을 회복했지만, 평소 저수량을 채울 수 있을 정도의 물의 순 유입은 일어나지 않았다. 2006-07년 가뭄의 경우 특히 물의 순 유입량이 적어 많은 저수지에서 저수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물의 희소성이 커짐에 따라 거래되는 물(traded water) 가격은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낙농산업을 위한 관개수 공급량은 앞으로 수년간의 강수량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관개수의 크기와 더불어 원예농가와 같이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생산자들과의 경쟁에 의해 호주의 우유 생산량이 달라 질 것이다. 강우량이 많을수록 다른 품목의 생산자들과 경쟁도 줄어들고 물 가격이 저렴해 질 것이다. 젖소 사육을 위한 초지가 풍부해져 우유 생산이 증가할 것이다.

2007-08년 호주 우유 가격은 상승할 듯

2007-08년 호주의 우유 가격은 전년대비 6% 상승한 리터당 34.7 센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 우유의 농가판매가격이 계속 호조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수출지향적 낙농산업이 낙농제품의 세계가격이 계속 강세를 나타내는 것을 잘 활용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2008-09년부터는 2006-07년 가격 기준으로 리터당 33센트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2006-07년 수준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림 3 호주의 우유 생산과 실질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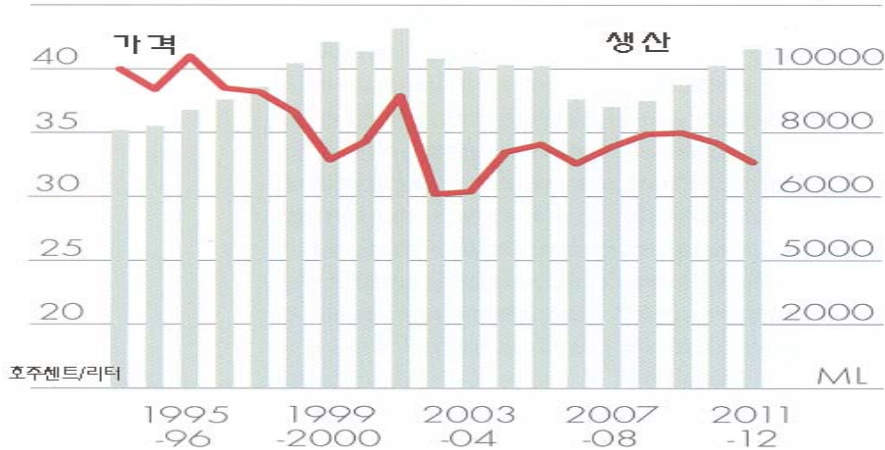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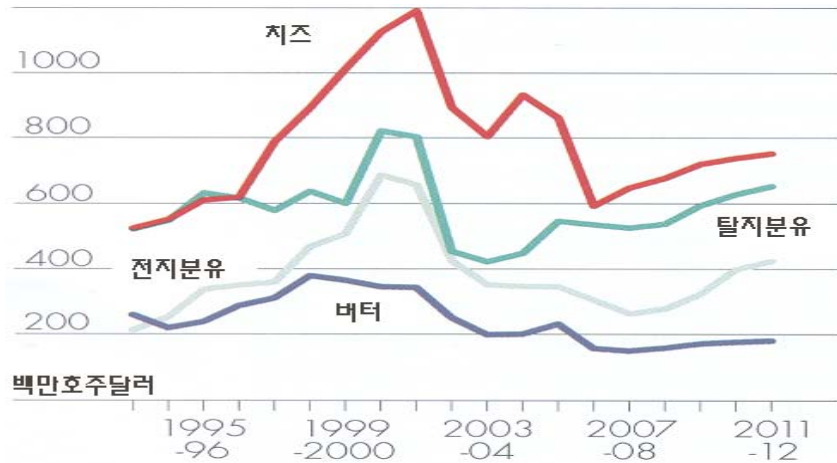


그림 4 호주 낙농제품수출액(실질가격 기준)



생산

2006-07년 호주의 우유생산은 가뭄이 심해서 전년보다 10% 가량 감소한 90억 5천만 리터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 2007-08년에는 이보다 더 감소하여 88억 리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2008-09년부터 호주의 우유 생산이 서서히 회복하기 시작하여 2011-12년 우유 생산은 110억 리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07-08년부터 2011-12년까지 호주의 젖소 사육 두수는 12%, 우유 단위 수량은 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낙농제품의 가격과 수익이 변함에 따라 낙농제품의 생산 구조도 변했다. 예를 들면 치즈와 분유 가격은 다른 낙농제품에 비해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치즈와 분유 가격이 강세를 유지할 것이란 기대는 아시아, 브라질, 러시아에서 치즈 수입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예상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유럽연합에서도 치즈 수요가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분유 생산에 이용될 우유가 치즈 생산에 이용된다. 결과적으로 이들 제품 가격이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 속에서 호주에서도 이들 제품의 생산이 증가할 전망이다.

호주의 수출액 감소하다가 회복할 전망

가뭄에 따라 우유 생산이 감소함에 따라 호주의 낙농제품 수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2006-07년 호주의 낙농제품 수출액은 16% 감소한 22억달러에 그칠 전망이다. 2007-08년부터 낙농제품 수출이 서서히 회복하여 2011-12년 낙농제품 수출액이 26억 달러(2006-07년 가격 기준)에 달할 것이다. 미 달러 대비 호주 달러의 평가 절하를 가정할 때 미 달러화로 표시된 낙농가격 하락이 호주의 낙농제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참고자료

Peter Berry and John Hogan, "Dairy" in Australian Commodities Outlook 2007, ABARE 발췌정리